

'나 혼자 산다' 1000만명...70대 20% 가장 많아

독거노인·미혼 싱글 꾸준히 늘어 1인 세대 비중 40% 넘어선 듯 복지·주거대책 등 정책 전환 필요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홀로' 가구를 이루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매년 늘고 있어 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물론 주거 대책 등 각종 정책의 방향이 1인 가구의 비중과 맞춰 계획·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전히 1인 가구중 독거노인의 가구는 증가세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혼 싱글이나 독거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가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세대의 5명 중 1명은 70대 이상으로,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전체 세대 수는 2391만4851개다. 이는 2022년 12월 세대 수였던 2370만5814개보다 20만9037개(0.9%) 증가한 수치다.

특히 1인 세대 수는 993만5600개로 같은 기간 21만1344개 늘어, 전체 세대 수 증가를 1인 세대가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55%에 달해 전체 10세대 중 4세대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2인 세대(24.53%), 4인 이상 세대(17.07%), 3인 세대(16.85%) 순이었다.

2인 세대는 2022년보다 12만개 이상 늘어 지난해 586만6073개에 달했다. 3인 세대도 2만개 가까이 늘어 402만9815개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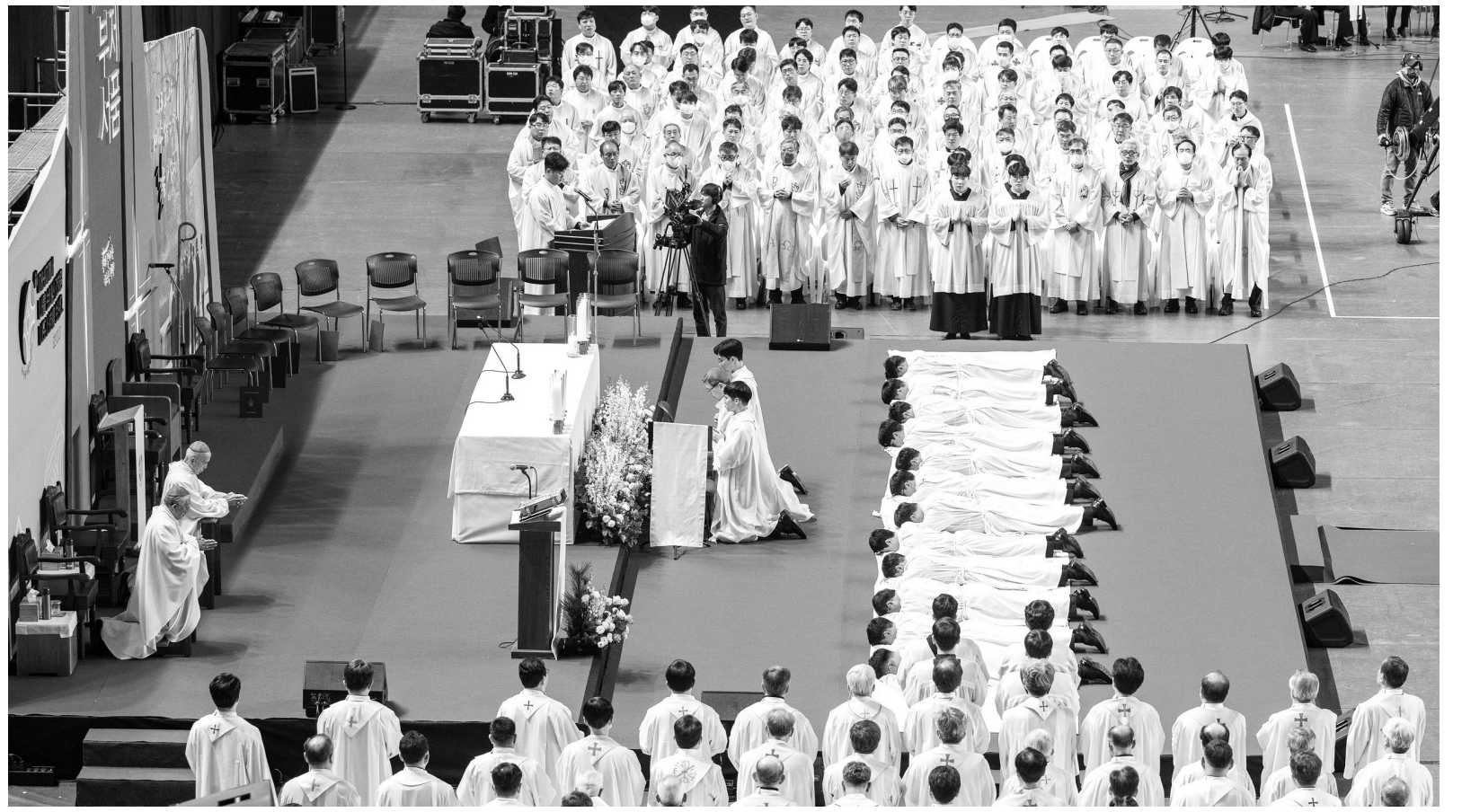
반면 4인 세대는 10만개 이상 줄어든 314만 8835개, 5인 세대도 3만개 이상 줄어든 74만3232개를 기록해 '다인 세대'의 감소세가 뚜렷했다.

2016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인 세대의 비중은 34.97%에서 41.55%로 높아졌지만, 4인 이상 세대는 25.13%에서 17.07%로 크게 줄었다.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9.66%로 가장 많았다. 고령화에 따라 독거 노인의 수가 갈수록 늘어난 탓이다. 다음으로 60대 18.44%, 30대 16.87%, 50대 16.45%, 20대 15.25%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20~5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더 많았고,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더 많았다.

세대당 인구는 2022년 2.17명에서 지난해 2.15명으로 소폭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독거노인, 미혼 싱글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서도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부제 서품미사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2024 사제·부제 서품 미사가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렸다. 옥현진 대주교의 집전으로 열린 서품식에는 사제 9명, 부제 3명에 대한 서품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인구감소지역이 증가로...비결은 주거환경 개선

전남 신안·경기 가평 등 9곳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곳 가운데 반등에 성공한 지역에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공통적인 비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대구 서구와 부산 동구, 전남 신안군, 전북 순창군, 충남 예산군, 경기

가평군, 경북 울릉군, 강원 고성군, 충남 금산군 등 9곳이었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인구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수'를 토대로 지정한다.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 12곳, 경기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순이다. 통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대구 서구는 2022년보다 인구가 4261명이 늘면서 '최다 인구 증가 지역'에 올랐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광주시, 동물보호소서 입양하면 펫보험 지원

유기동물 입양 1년간 보험비 전액

광주시가 호남권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유기동물 안심 펫보험 지원사업에 나선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이나 고양이를 입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펫보험비를 1년간 전액 지원한다.

올해 첫 시행하는 유기동물 안심 펫보험 지원사업은 질병치료비 등 유기동물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호남권 자치단체 중 광주시가 처음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광주시동물보호소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으로, 1년간 유기동물 펫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수술비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 받을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전담 보험회사를 선정해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 1월에 입양한 시민도 2월부터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 1년치 보험료가 평균 15만원 수준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전국 최다...여수 임포항 등 10개소 선정

2년 연속 최고...국비 527억 확보

전남도가 2024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10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838억원(국비 527억원)을 확보하며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보였다.

해양수산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 후속으로 어촌·어항에 대한 경제·생활 거점을 조성하고 어업 기반 시설 정비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도는 진도·여수·신안이 각 2개, 고흥·보성·무안·함평이 각 1개씩 10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유형1은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2는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3은 안전 기반(인프라) 개선이다.

경제플랫폼을 조성하는 '유형1' 사업에 선정된 진도군 서망항에는 300억원을 투입한다. 쾌속카페리 등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물류장 및 청년주거단지 등이 조성된다.

수산물유통·판매시설, 관광복합센터, 산책로 및 공원 등 경관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해 수산업 중심의 여객, 관광, 산업이 융·복합된 어촌 경제거점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플랫폼을 조성하는 '유형2' 사업에는 고흥군 죽도·지족도항과 함평군 주포항 2개소가 선정

됐다. 지역문제를 분석하고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앵커조직이 구성·운영된다.

어촌의 생활여건 및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각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돌봄·의료·문화 등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어항시설 보수보강 등을 추진한다.

'유형3' 사업인 여수시 임포항 등 7개소에는 어촌·어항의 최소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각 50억원을 투자한다. 방파제·물양장 등 어업 필수시설과 생활안전시설 등을 개선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개 어촌마을이 선정돼 총사업비 1431억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기정 시장, 광주터미널 랜드마크 구상 日 방문

18~21일 도쿄·요코하마 고밀개발 현장 찾아 개발 방안 모색

강기정 광주시장이 일본 도심 고밀개발 현장을 찾아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의 복합 랜드마크 개발 방안 구상에 나선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과 시 관련 공무원들은 오는 18~21일 도쿄와 요코하마를 방

문한다. 도쿄에서 아리아게 가든, 미드타운 아에스, 아자부다이 힐스, 롯본기 힐스 등을 둘러보고, 요코하마로 이동해 미나토미라이 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 시장 등이 방문할 아리아게 가든은 매립단지

내 편의 기능과 마이크(MICE) 기능을 도입한 계층이며, 미드타운 아에스는 도쿄역과 연결된 대규모 복합시설이다. 아자부다이 힐스 모리 JP타워는 높이 330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강 시장은 "신세계백화점 확장, 맞물려 있는 터미널 개발과 관련해 일본의 유사한 모형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주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와 박세진 금호익스프레스 상무 등 기업 임원들도 동행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개발부지 매매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매매금액 720억

대지면적 66,773㎡ (20,198평)

연면적 33,730㎡ (10,203평)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소 등 첨단산업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염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채권신고공고(1차)

당 회사는 2024년 01월 04일 주주서면 결의로 해산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4년 03월 12일까지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11일

주식회사 다운케이글로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로 57, 지식동 1314호
(오선동, 케이비아이 하남지식산업센터)
청산인 김희준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동산 주식회사(이하 김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마음(이하 마음이라 한다)은 2024년 01월 10일자 개최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과로 (갑)동산 주식회사 전기공사업 (제 전남-01802호)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주식회사 마음과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며 합병 제530조의 9제3항의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1일

1. 양도대상 : 전기공사업(제 전남-01802호)
"갑" 동산 주식회사
전남 목포시 삼학로 303-1(용해동)
대표이사 김진아 (061-227-0357)
"을" 주식회사 마음
전남 목포시 삼학로 303-2(용해동)
대표이사 정윤진 (061-227-0357)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